



(최희섭)

CK포 폭발

SK와 시범경기서 최희섭·김상현 세 방 합작... 올 홈런왕 경쟁 예고

‘CK포’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KIA 타이거즈 공격의 핵 최희섭과 김상현이 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홈런 세 방을 합작했다. 팀은 불펜진의 난조로 9-10으로 역전패 당했다.

최희섭과 김상현은 재활 후 첫 피칭에 나선 SK 송은범을 상대로 1회말 시원한 타격쇼를 선보였다.

3번 타자 김상현이 1사 1루에서 좌측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공격의 물꼬를 텄다. 4번 최희섭은 곧바로 2루타를 쏘아올리며 공격의 흐름을 이어갔다. 중심타선이 폭발하면서 KIA는 1회에만 대거 5점을 뽑아냈다.

4회말 이번에는 최희섭의 홈런포가 터져 나왔다. 이종범의 좌전안타에 이어 채종범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면서 1사 1·2루. 최희섭이 바뀐 투수 가뜰먹의 초구를 그대로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 넘어가는 비거리 130m의 장의

홈런을 기록했다. 점수는 8-0이 됐다. CK포의 시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운드의 난조로 8-10으로 승부가 뒤집힌 8회말, 첫 타석에서 좌월 투런홈런을 장식한 김상현이 이번에는 이승호의 공을 그대로 밀어쳐 자신의 시범경기 3호 홈런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홈런왕 경쟁을 하며 KIA의 1위 행진에 일등 공신이 됐던 두 선수는 시범경기 막바지 마침내 CK포를 가동하며 변함없는 위력을 과시했다. 부상에 대한 걱정도 털어냈다.

김상현은 무릎이 좋지 않아 전지훈련에서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지 못했다.

7일 시범경기 가 개막했지만 훈련 부족으로 처음 타석에 선 것은 지난 11일 넥센과의 경기였다. 김상현은 이 경기에서 9회 대타로 나와 방망이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삼진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첫 선발 출전되었던 12일 세 번째 타석만에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한 뒤, 17일 두

개의 홈런을 쓸어담으며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희섭의 홈런도 값지다. 타격폼을 손 본 최희섭은 시범경기 6경기에 나와 0.357의 타율을 기록했지만 손맛을 보지 못했다.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까지 오면서 코칭스태프를 긴장시켰다.

전날 벤치를 지키며 절대안정을 취했던 최희섭은 17일 경기에서 시범경기 마수같이 홈런을 터트리며 김상현과의 홈런왕 경쟁을 예고했다.

모처럼 CK포가 가동됐지만 팀은 이동현, 손영민 등 마운드의 난조로 8-0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선발 전대현은 5회 2루타를 포함해 4개의 안타를 내주며 4실점 하기는 했지만 낚차 큰 커브, 최고 145km의 직구를 앞세운 공격적인 피칭으로 정규시즌 선발 자리를 예약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현)

추신수 첫 대포

샌프란시스코와 시범경기서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미국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첫 홈런을 쏘아올렸다.

추신수는 17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풋이아 볼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범경기 3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1회말 2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에이스 팀 린스컴의 4구를 밀어쳐 왼쪽 펜스를 넘겼다.

시범경기 7게임 만에 터진 올 시즌 공식경기 첫 홈런이다. 2008년 18승, 2009년 15승 등 2년간 452¼이닝, 33승12패, 평균자책점 2.55, 526탈삼진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린스컴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우완 투수로 꼽힌다.

연봉조정에서 역대 최고액을 요구한 린스컴은 샌프란시스코와 2년간 2천300만달러(260억원)에 계약했다.

추신수는 3회에도 타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이날까지 7경기에서 20타수 7안타(타율 0.350), 1홈런, 5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홈런을 포함해 7안타를 효과적으로 터뜨려 7-1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박찬호 ‘다저스 10년 올스타’

박찬호(37·뉴욕 양키스)가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지난 10년간 뛴 선수 중에서 올스타로 뽑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17일(한국시간) 박찬호가 제5선발로 포함된 다저스의 2000년대 올스타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1994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박찬호는 2000년과 2001년 다저스에서 뛰었다. 2000년 18승 10패, 2001년 15승 11패를 올리는 등 박찬호는 이 두 해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전성기를 보냈다.

박찬호는 제1선발 채드 브링슬리를 비롯해 케빈 브라운, 데릭 로, 브래드 페니 등과 함께 선발진에 포함됐다.

다저스의 2000년대 올스타팀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 스페인어 방송 캐스터 하이미 하린, 10회나 올스타에 뽑힌 왕년의 다저스 스타 스티브 가비 등의 투표로 결정됐다.

전체 15명 가운데 현재 다저스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브링슬리 등 7명이다. 과거에 다저스에 뛴 선수로는 박찬호와 함께 외야수 스티브 가비, 마무리 투수 에릭 가니에 등이 뽑혔다. /연합뉴스

‘불륜 스캔들’ 우즈 복귀

내달 8일 PGA 마스터스 대회 참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다음 달 8일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하면서 골프에 복귀하겠다고 지난 16일 선언했다.

우즈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스터스는 내가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대회이고 이 대회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 게임에서 벗어나 길고 필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오거스타에서 시즌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스터스 대회는 내달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골프장에서 열린 예정이다.

그는 “내 경력에서 메이저 챔피언십은 항상 특별한 초점이 돼 왔고 프로로서 마지막 경기를 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거스타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즈는 “내가 마침내 다시 골프대회에 대해 생각할 위치에 달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경기는 마스터스 대회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우즈는 “마스터스가 첫 복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널드 파머와 조 루이스 등에게 전화를 걸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

셔널’ 대회와 ‘태비스톡 컵’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 골프업계에선 우즈가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즈는 이어 “나는 약 2개월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며 “경쟁에 복귀하지만 아직 내 개인적 인생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지난해 말 플로리다주 자택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이후 혼외자식 등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골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우즈 복귀무대 마스터스 선택 왜?

갤러리 통제 돌발 상황 위험 적고 코스 익숙

시즌 첫 메이저, 우승하면 성추문 해소 기대

타이거 우즈가 4월7일(한국시간)부터 시작되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를 복귀 무대로 정한 데는 코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스터스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골프장은 평소에도 우즈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곳이다. 게다가 이 대회는 일반 갤러리는 물론 미디어에 대한 통제도 엄격하기로 유명해 지난해 11월 의문의 교통사고에 이어 각종 추문에 시달렸던 우즈가 마음 편히 골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셈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즈의 복귀 선언에 발맞춰 ‘우즈가 마스터스를 택한 이유’라는 기

사를 통해 우즈가 이 대회를 복귀 무대로 삼은 이유를 분석했다. 먼저 ‘통제된 환경’이 꼽혔다. 이 대회는 골프 관련 미디어가 아니면 취재 허가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즈로서는 자신의 추문을 확대 재생산했던 인터넷 매체와 파파라치 등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입장권을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회 가운데 하나라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된 갤러리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우즈의 선택에 힘을 실어줬을 터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 회원들은 평소에도 품격있는 매너로 잘 알려진 터라 우즈가 걱정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위험성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제된 환경’이라는 장점 외에 무엇보다 우즈와 가장 친숙한 코스가 또 바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이라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마스터스에 서만 네 차례 정상에 오른 우즈는 이 코스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것은 물론 때를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훤히 다

이밖에 마스터스라는 대회가 갖는 비중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라는 비중 때문에 우즈의 복귀 자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회 결과에 따라 다른 우승자가 나오면 그쪽에도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반대로 우즈가 우승하면 그간의 각종 추문을 일거에 해소하고 다시 세간의 관심이 그의 골프 실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합뉴스

